

# 광주시 “시민 행복 시대로”... 전남도 “지방 소멸 극복”

## 새해 첫 정례회·시무식 개최...올 역점 시책 추진 다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갑진년 새해 첫 업무 시작과 함께 시민 행복 시대와 지방 소멸 극복 등을 다짐했다.

강기정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해 첫 정례회를 열어 직원들을 격려하고 “더 살기 좋은, 더 즐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면서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공직자가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윈윈’으로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국립5·18민주묘지, 민족민주열사묘역(규모역)에서 신년참배하고, 나라의 발전과 지역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날 신년참배에는 정부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 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공직자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가장 좋은 것은 불과 같다”는 노자

의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새해 첫 화두로 제시했다. 청룡의 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청룡이 승전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 있어야 하듯 ‘상선약수’를 교훈 삼아 물처럼 몸을 낮추고 인화단결해 힘찬 새출발을 하자는 의미다.

김지사는 특히 2024년갑진년을 지방소멸 극복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지난 한 해 도민들께서 도전과 용기, 불굴의 ‘전라도 정신’으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줘 전남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빛냈다”며 “올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이 자라나는 지방시대 1번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청년인민국을 신설,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남형 만원주택 신축 공급을 추진한다.

또 최첨단 전력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세풍산

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5000억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 속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구축을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인공지능(AI) 첨단농생명 벨리·청년 임대형 스마트 단지 조성, 광주·영암 아우토티비 등 기반시설 설치에도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김지사는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인권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다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다”며 “그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어받아, ‘먼저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선죽제인(先晝制人)’의 자세로 중무장해 세계로 뽐내려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도청 실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 현충탑과 무안 김대중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쌍특검법’ 재의 요구 국무회의 상정 지연

### 국회, 법안 이송 연기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할 바 있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속칭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이정현 “정부와 호남간 오작교 역할 하고 싶다”

### 광양·곡성·구례 출마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구 확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변수는 있지만, 고향인 곡성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광양과 구례에서는 선거를 처음 치르기 때문에 나홀로 동네 구석 구석을 혼자 다니면서 지리도 익히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면서 “정치 선배로서, 패아플레이를 하기 위해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현 정부와 호남 간 오작교 역할을 할 인물도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중진 정치인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또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분권과 함께 재정·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을 대폭 이양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다”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도 자치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곡성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 정부수석·홍보수석 등을 역임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 노희용 “동구·남구 연계 역사·교육특구 조성”

###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

올해 총선 광주 동남을 출마를 준비중인 노희용 예비후보는 2일 광주전을 중심으로 동구와 남구를 잇고 역사·문화 자원을 발전시키는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 예비후보는 이날 “동구와 남구 역사·문화자원 활성화와 청소년 교육을 위해 역사·문화 중심 권역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사·문화 중심권역은 광주전을 중심으로 남구와 동구를 연계하는 길로 근대 역사·문화특화지구, 청소년 교육특화지구로 구성된다.

노 예비후보는 “그동안 광주전을 중심으로 동구와 남구가 나뉘어져 있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광주전을 중심으로 하나



의 동구와 남구를 만들고, 광주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존·발전시켜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 예비후보는 광주전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고 양림파출소를 중심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사직동 빛의 공원을 연계한 ‘빛의 소통광장’ 조성,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홍보 및 축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노 예비후보는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광주시 동구청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국힘, TK서 신년회

### 지지사·유튜버 등 성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참석한 TK(대구·경북) 지역 당 신년 인사회 행사장은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이 대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대구 동구 국립산업연계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30여분 뒤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TK 지역 당 신년 인사회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장에 지지자, 유튜버, 카메라를 든 시민 등 1천여명이 한 번에 몰리면서 한 위원장이 엑스코 실내로 들어오는데만 많은시간이 소요됐다.

카메라를 든 유튜버와 지지자 등 일부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년 보호팀과 행사팀 등을 현장에 배치한 모습이었다.

단상에 오른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 길게 줄을 선 대구 시민들과 대화했다”며 “휴가 나온 군인, 눈술 보러 서울 가는 수험생, 분가에 돌아온 직장인, 기자역 상점에서 일하는 여사님들이었다. 이런 동료 시민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TK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행사는 TK 시·도당 위원장의 신년사 등 1시간 여간 진행된 뒤 끝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가 있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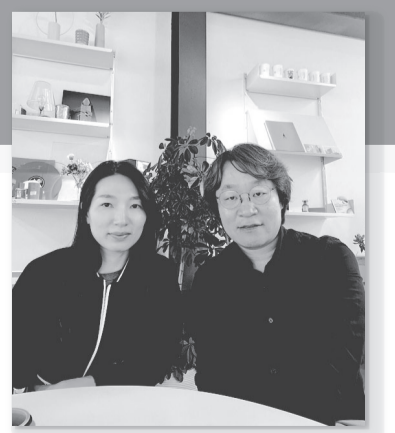
- 이호동 <달이 되려나>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